

美 대선·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

-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-

- 11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금리 인하($\Delta 25\text{bp}$) 결정 -

- 지정학적 리스크,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 강화 -

- 가계부채, 부동산시장·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 만전 -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'24. 11. 8.(금) 07:30,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「거시경제금융회의」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(한국시간)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의 금리 인하 결정과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·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자: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,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,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

※ (별첨) 경제부총리 모두발언
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	책임자	과 장 정 일 (044-215-2750)
		담당자	사무관 최봉석 (bongseokchoi@korea.kr)
기획재정부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 유창연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 윤현곤 (gonnnn@korea.kr)
기획재정부	국고국 국채과	책임자	과 장 곽상현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청윤 (luckykcy@korea.kr)
금융위원회	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 김성준 (02-21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 장원석 (jangwonsuk@korea.kr)
한국은행	조사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팀 장 김대용 (02-759-4181)
		담당자	조사역 김의정 (kej2812@bok.or.kr)
금융감독원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팀 장 김정훈 (02-3145-8180)
		담당자	수 석 신상주 (hipotes@fss.or.kr)

지금부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【美 대선 동향 및 11월 FOMC 결과·반응 및 평가】

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
미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

대선 결과 확정 직후 미국 3대 주가지수는
사상 최고치¹⁾를 기록하였으며,
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도 상승²⁾했습니다.

한편, 미 연준은 간밤 FOMC를 통해
정책금리를 25bp 낮추면서(금리 상단 5.0 → 4.75%),
지난 9월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.

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
통화정책이 보다 중립적 기조로 가는 경로에 있다고 언급*하면서,
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

* "We're on a path toward a more neutral stance"

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
이번 회의 결과가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
전날 美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
대체로 안정적인 모습³⁾을 보였습니다.

1) 11.6일 주요 지수 변동률(% 현지시각 기준) : (S&P500)2.53 (나스닥)2.95 (다우)3.57 (유로스톡스)△1.43

2) 미 국채 금리(% 10년물) : ('24.9말)3.79 (10말)4.28 (11.6)4.43 / 달러인덱스 : ('24.9말)100.78 (10말)103.98 (11.6)105.15

3) (다우)△0.0% (S&P500)+0.7% (美 국채금리) [2년물]△6bp [10년물]△11bp, (달러)△0.7%

그러나, 중동,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,
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
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,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
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.

【 정책 대응방향 : 리스크 관리 + 지속 성장 】

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
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최근 우리 금융·외환시장은 미 대선 영향으로
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,
주가, 채권 금리, CP·CD 등 단기 금리⁴⁾는
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

그러나,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,
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
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·외환시장까지 확대·개편하고,
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
상황별 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습니다.

가계부채, 부동산시장·PF 등 잠재 리스크도
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.

8.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
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,
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.

4) 코스피 지수(pt) : ('24.11.1)2,542.36 (11.4)2,588.97 (11.5)2,576.88 (11.6)2,563.41 (11.7)2,564.63
국고채 금리(% 10년물) : ('23.12말)3.18 ('24.1말)3.35 (4말)3.66 (7말)3.06 (10말)3.10 (11.6)3.13 (11.7)3.10
회사채 금리(% AA-) : ('23.12말)3.90 ('24.1말)4.00 (4말)4.00 (7말)3.46 (10말)3.50 (11.6)3.53 (11.7)3.49
CP/CD 금리(% 91일) : ('23.12말)4.27/3.83 ('24.1말)4.23/3.68 (4말)4.18/3.57 (7말)3.88/3.50 (10말)3.51/3.43 (11.6)3.51/3.44 (11.7)3.51/3.43

부동산PF의 경우,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
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
질서 있는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
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겠습니다.

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
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,
11월 중 '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'를 가동하여
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